

-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여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간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어패류를 익히지 않은 채 섭취하거나,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하여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될 수 있다.
 - * 살모넬라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비브리오균감염증, 병원성 대장균감염증 등
- 피부를 노출한 채로 풀숲에 들어가거나, 작업 또는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 있고, 모기에 물릴 경우 말라리아,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
- 휴가기간 해외여행 시에는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및 식품 매개감염병, 뎅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아열 등 모기매개감염병과 홍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주의해야 한다.
- 2018년 해외유입에 의한 법정감염병 신고건수는 597건으로 2017년(531건) 대비 12.4%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건수는 332건(1.1.-6.30.)이다.(붙임1)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객에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동남아 및 남미에서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뎅기열 해외 유입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에서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열대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 홍역은 최근 전세계 유행으로 2019년 5월까지 전년도 동기간 대비 환자수가 약 3배 증가하였으며(세계보건기구(WHO) 보고 기준), 우리나라에서도 홍역 유행국가 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중심으로 2019년 168명(6.30. 기준)이 발생하였다.

-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환자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 '19.1.1.~7.3.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158명 발생
- 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철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12~23개월의 소아나,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은 A형간염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하고, 만성 간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먹어야 한다.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 활동시 밝은색의 긴 옷을 입어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의 모기/진드기 회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또한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등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등으로 안전한 식·음료를 섭취하도록 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을 여행할 경우 A형간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홍역 유행국가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1968년 이후 출생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특히 20-30대)은 출국 1개월 전 최소 1회 홍역(MMR) 예방접종을 하고,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1회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며, 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면역의 증거: 1) 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2) 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3) 홍역 항체 검사 양성

** 필수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만4~6세)과는 별개로 6~11개월 영아에게 신속한 면역 획득을 위해 예방접종 미리 실시. MMR 필수예방접종은 일정에 맞추어 실시해야 함

- 여행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발생국 여행객은 귀국 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 연기하도록 하며, 말라리아 유행 국가 여행 시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이 권고된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예방하기 위해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NOW' 누리집(해외감염병NOW.kr)을 운영 중이다.

- 한번의 검색을 통해 여행지 감염병 발생상황 및 감염병 정보,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여행지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인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감염병NOW 홈페이지 (해외감염병NOW.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귀가 후 발열·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야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이동한 감염병총괄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감염병 의심증상의 집단발생을 신속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지속 운영(5.1.~9.30.)하고 있다”고 전했다.

- < 붙임 >
1. 여름철 발생 주요 감염병 통계
 2. 감염병 예방 수칙
 3. 국외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4. 휴가철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관련 홍보물
 5.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붙임 1 여름철 발생 주요 감염병 통계

□ 주요 감염병 연도별 신고 현황(2015~2019년)

○ 국내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홍역	비브리오패혈증	말라리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일본뇌염
'19	8,823	36	16	8,474	100	1	150	46	0
'18	3,417	121	46	2,417	10	47	501	259	16
'17	5,269	78	42	4,382	4	46	436	272	9
'16	5,711	109	90	4,653	9	55	602	165	28
'15	2,728	98	63	1,779	4	37	628	79	40

* 2019년은 1.1~6.30일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국외 유입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홍역	말라리아	덴기열	치쿤구니아열	중증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기타*
'19	332	32	53	68	23	85	5	0	5	61
'18	597	92	145	5	75	159	3	1	3	114
'17	531	50	70	3	79	171	5	0	11	142
'16	541	12	23	9	71	313	10	0	16	87
'15	491	23	25	3	71	255	2	1	-	111

* 2019년은 1.1~6.30일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기타 감염병: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C형간염 등

□ 2018~2019년도 국외유입 감염병 현황

(단위 : 건)

연도	유입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외대륙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인도	캄보디아	중국	기타			
2018	신고수 (%)	144 (24%)	72 (12%)	69 (12%)	52 (9%)	35 (6%)	32 (5%)	27 (5%)	89 (15%)	45 (8%)	14 (2%)	18 (3%)
	주요 유입 감염병	세균성이질 덴기열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덴기열 말라리아	장티푸스 덴기열 말라리아	덴기열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세균성이질 덴기열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덴기열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C형간염 A형간염 홍역	덴기열 C형간염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C형간염 라임병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2019	신고수 (%)	77 (23%)	81 (24%)	24 (7%)	28 (8%)	11 (3%)	11 (3%)	5 (2%)	50 (15%)	26 (8%)	12 (4%)	7 (2%)
	주요 유입 감염병	세균성이질 덴기열 홍역	홍역 덴기열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덴기열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덴기열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덴기열	C형간염 A형간염 세균성이질	덴기열 장티푸스 홍역	말라리아	C형간염 홍역	덴기열

붙임 2 감염병 예방수칙

<국내 발생 감염병 예방수칙>

구분	예방수칙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비브리오패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 및 85도 이상 가열처리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div>				
A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3개월의 소아나,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 고위험군**은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 <p>** 고위험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질환별</td> <td>·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제를 자주 투여 받는 혈액병 환자 등</td> </tr> <tr> <td>직업 및 상황별</td> <td>·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td> </tr> </table>	질환별	·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제를 자주 투여 받는 혈액병 환자 등	직업 및 상황별	·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질환별	·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제를 자주 투여 받는 혈액병 환자 등				
직업 및 상황별	·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또는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약물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모기 및 진드기매개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입어 노출부위를 최소화 - 기피제 사용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구분	예방수칙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모기매개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퇴치 제품(모기장, 모기 기피제 등) 사용 - 외출 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 - 방충망 및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 사용 - 의심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최근 여행력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 받기 - 발생지역 여행 후, 최소 1개월 간 헌혈을 하지 말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홍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년 이후 출생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특히 20-30대)은 출국 1개월 전 최소 1회 접종 ·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1회 접종 권고 * 면역의 증거 : 1) 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2) 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3) 홍역 항체 검사 양성 ** 필수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만4~6세)과는 별개로 6~11개월 영아에게 신속한 면역 획득을 위해 예방접종 미리 실시. MMR 필수예방접종은 일정에 맞추어 실시해야 함
중동호흡기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악하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우 섭취 금지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붙임 3 국외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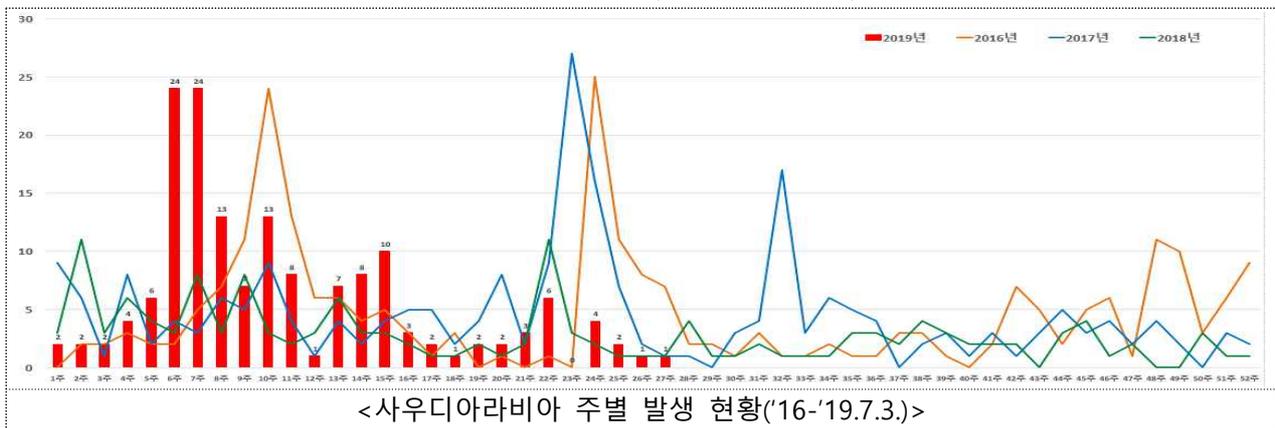
1 메르스 (사우디아라비아)

발생 현황 '19.1.1~7.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총 158명 발생, 37명 사망

* '16년 252명(사망 85) → '17년 250명(사망 80) → '18년 147명(사망 45)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9년	계	158	14	68	32	22	14	7
	1차 감염	82	9	25	19	10	12	6	1
	2차 감염	76	5	43*	13	12	2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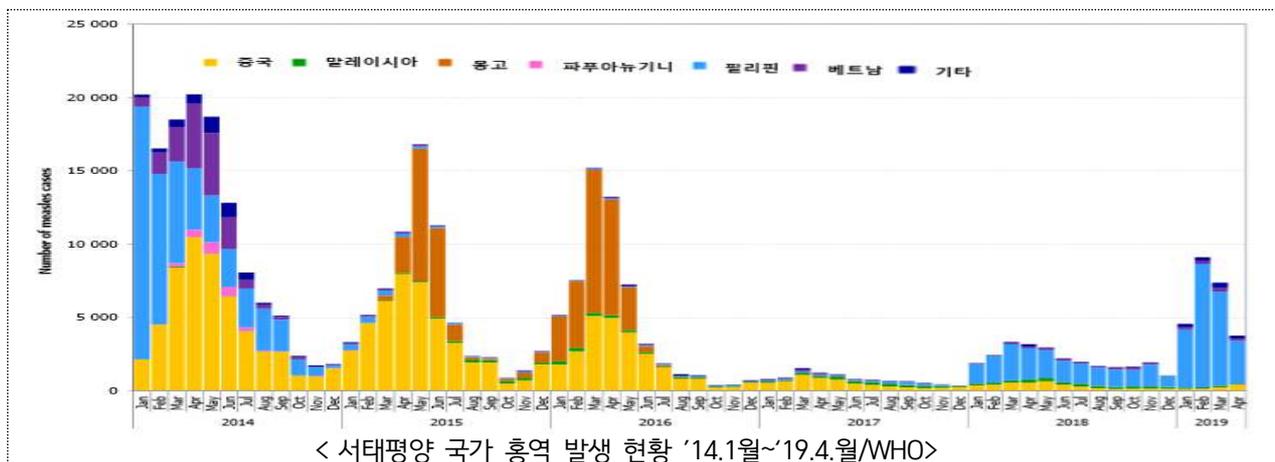
* '19년 2월 와디 알디와시르(Wadi Aldwasir)시 병원 유행으로 인한 발생 증가



분석 및 평가 산발적인 감염 사례 보고,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는 여전히 낮음

2 홍역 (서태평양 지역/미국)

발생 현황 (서태평양지역) 대부분 국가와 지역에서 환자 발생 중



- (필리핀) 7주 이후 감소하여 19주차는 전년 동기간 대비 0.5% 낮은 발생
 - * 주요발생지역 : 중앙 루손, 카라바존, 동부 비샤야, 수도 마닐라
 - * '19.1.1~5.1일까지 총 34,950명(사망 479), '18년 총 20,827명(사망 199)
- (중국) 환자 발생 지속
 - * 전국적으로 환자발생 중이며 '18년 발생은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례 보고, 큰 인구규모로 백만명 당 발생은(2.9명)으로 낮음
 - * '19.1월~4월까지 총 843명, '18년 총 3,940명
- (호주) 지난 4년 동기간 발생 건수보다 높은 발생
 - * 대부분 유입사례이며 전역에서 산발적 발생
 - * 주요 유입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미얀 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 * 연도별 발생현황: '17년 81명 → '18년 103명 → '19.1월~5월까지 128명
- (홍콩) 홍콩 퇴치국으로 대부분 유입·유입연관 사례 발생
 - * 유입사례에 의해 홍콩 국제공항 직원 접촉자 중심 유행 발생,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해외 여행력 확인
 - * 주요 유입국: 베트남, 일본, 대만, 유럽, 캄보디아, 태국
 - * '19.1.1 ~ 6.21일까지 총 83명, '16년 홍콩 퇴치국으로 인증
- (대만) 최근 2년보다 높은 발생 중이며 신타이페이 중심발생
 - * 주요발생지역: 타이페이 시(18), 신타이페이시(34), 도원시(16)
 - * 연도별 발생현황: '18년 40명(유입 12) → '19.1.1 ~ 6.26일까지 100명(유입 35)
- (일본) 오사카 부 중심 발생 지속
 - * 전체발생의 75% 이상이 자국 내 발생
 - * 주요발생지역: 오사카 부, 미에현 현, 아이치 현, 도쿄 도, 가나가와 현
 - * 주요 유입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
 - * '19.1.1~6.15일까지 총 631명 발생
- (뉴질랜드) 홍콩 퇴치국으로 유입·유입연관사례 발생
 - * 환자 중 필리핀 및 해외 여행관련자 다수이며 확인된 유전자형은 B3
 - * 주요발생지역: 마누카우, 노스랜드, 캔터베리, 오클랜드, 와이카토
 - * 연도별 발생현황: '18년 30명 → '19.1.1~6.21일까지 221명
- (말레이시아) 5년 사이 800% 이상 발생 증가
 - * '13년(195명) 대비 '18년 1,934으로 891.8% 증가
 - * 백신 미접종자에서 환자발생이 높고 '18년 발생환자 중 미접종자는 1,467명(76%)
 - * 연도별 발생현황: '18년 1,934명 → '19.1.1~6.21일까지 2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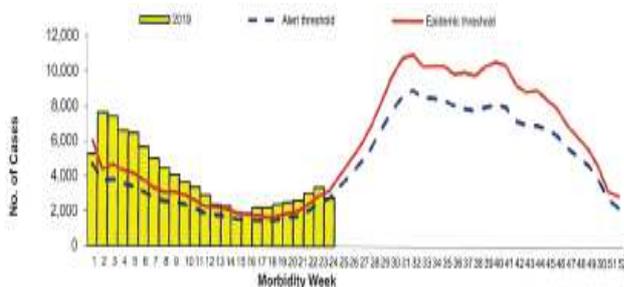
발생 현황 (미국) 28개 주에서 미접종자 중심으로 발생 지속

- * 연도별 발생현황: '17년 120명 → '18년 372명 → '19.1.1~7.3일까지 1,109명
- * 주요 발생지역: 뉴욕주(록클랜드카운티), 뉴욕시, 미시간, 캘리포니아(버드, LA, 새크라멘토 카운티), 조지아,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워싱턴

3 뎅기열 (아시아 지역)

필리핀 전년 동기간 대비 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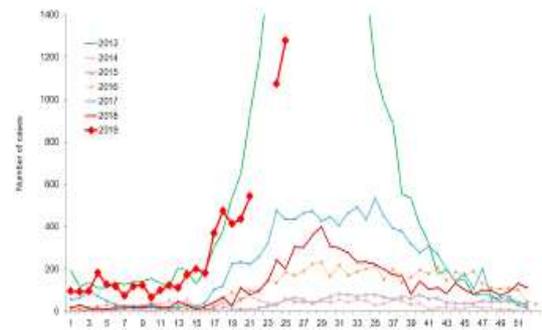
'19.1.1~6.15일까지 환자 92,267명 발생, '18년 동기간 발생(50,145) 대비 약 2배 증가



<2019년 주별 발생현황/필리핀 보건부>

라오스 최근 5년간 동기간 발생 증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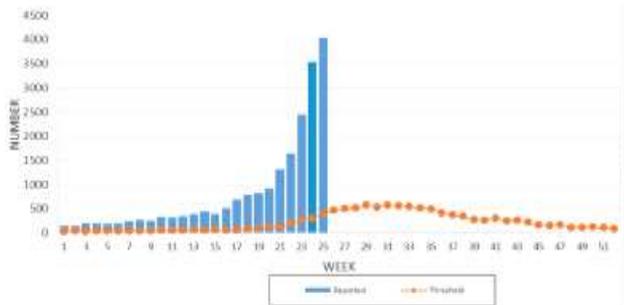
'19.1.1~6.22일까지 환자 8,042명 발생(사망 22명)



<2013-2019 주별 발생현황/라오스 보건부>

캄보디아 최근 5주간 가파르게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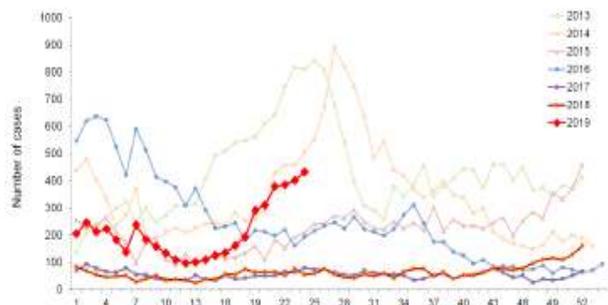
'19년 25주차(6.16-22)에 환자 4,032명 발생



<2019년 주별 발생현황/캄보디아 보건부>

싱가포르 최근 13주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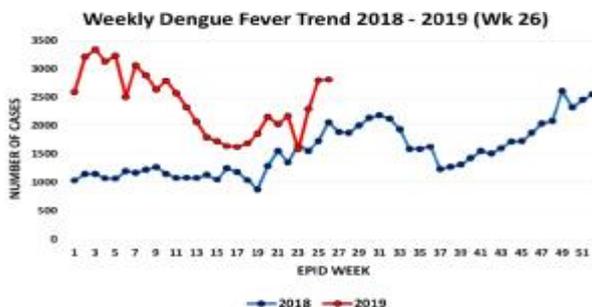
'19.1.1~6.22일까지 환자 5,575명 발생



<2013-2019 주별 발생현황/싱가포르 보건부>

말레이시아 전년 동기간 대비 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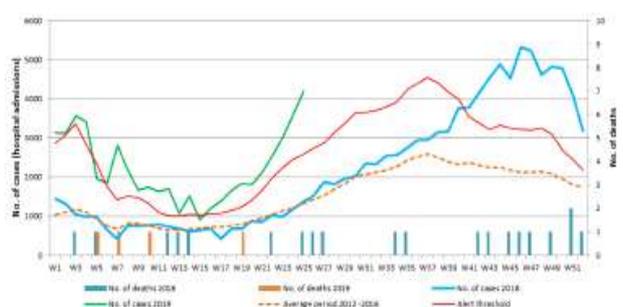
'19.1.1~6.29일까지 환자 62,421(사망 93) 발생
'18년 동기간 발생(32,425) 대비 2배 증가



<2018-2019 주별 발생현황/말레이시아 보건부>

베트남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증가

'19.1.1~6.22일까지 환자 81,132명 발생
'18년 동기간 발생(26,201) 대비 3배 증가



<2017-2019 주별 발생현황/베트남 보건부>

붙임 4 휴가철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관련 홍보물

1)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1. 외국에 가기 전에 준비해요!



2. 여행가서 주의할 사항이에요.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위험국가의 경우 예방접종
 - 황열, A형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여행 준비물:

- 긴팔/긴바지
- 손소독제
- 모기퇴피제
- 선글라스
- condom

30초 이상 손씻기

익혀먹기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음료수

과일,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모기 방제

3. 여행 후가 중요해요.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발진

-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 병원을 방문하여 여행한 국가와 지역을 알리고 검사 및 치료를 받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 주세요!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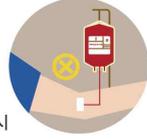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2) 해외여행시 모기매개감염병 예방홍보 포스터(2019)



<p>여행 전</p> 	<p>01 여행지역별 주의해야할 감염병 확인하기! <small>* 국가별 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해외질병—국가별 질병정보) 및 모바일(m.cdc.go.kr—해외질병—국가별 질병정보)에서 확인 가능</small></p> 	<p>02 모기 기피용품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및 긴바지 등) 준비하기!</p> 
<p>여행 중</p> 	<p>01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되는 숙소 이용하기!</p>  <p>03 기피제는 허용량을 준수하여 신체 노출 부위 및 옷에 얇게 바르고, 눈, 입,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기! <small>* 기피제 사용전 동봉된 설명서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통해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small></p> 	<p>02 외출시 밝은색 긴팔 및 긴바지 착용하고, 숙소에서는 모기장, 모기향 등 사용하기!</p>  <p>04 야외 활동시,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 및 산 속 등은 가급적 방문하지 않기!</p> 
<p>여행 후</p> 	<p>01 귀국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 알리고 진료받기!</p>  <p>0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를 방문한 남녀는 귀국 후 6개월 동안 임신연기, 콘돔사용 또는 성관계 하지 않기! <small>* 지카바이러스는 성접촉을 통해 전파 가능</small></p> 	<p>02 해외여행 후, 헌혈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p>  <p>04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를 방문한 임신부는 산전진찰을 통해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 모니터링 하기!</p> 

붙임 5 검역감염병 오염지역('19. 7. 1.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2019년 7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또는 '오염근거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배류 또는 경유) 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 ☐ 콜레라(5일)
- ☐ 동창(포획인동무연자간세균성충)(10일)
- ☐ 뎀소토미아(5일)
- ☐ 콜리오(21일)
- ☐ 황열(6일)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14일)

아프리카 (37개국)					
가나	Y	기보	Y	감비아	Y
가나	Y	나이지리아	Y, O, O	남수단	Y
라이베리아	Y	마다가스카르	O	말라위	O
모리타니	Y	모잠비크	O	베냉	Y
부룬디	Y	세네갈	Y	소말리아	O, Y
시에라리온	Y	말라위	O	양골리	Y, O
우간다	Y, O	잠비아	O	레드기니	Y
상투메	O	차드	Y	카메룬	Y, O
코트디부아르	Y	콩고	Y	콩고민주공화국	Y, O, O
투고	Y			인도네시아	O

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16개국)			
라오스*	O	브레인*	O
사우디아라비아	O	아랍에미리트	O
이탈리아스립	O	예멘*	O, O
오만	Y	요르단*	O
이란*	O	인도	O
중국**	O	카타르*	O
쿠웨이트	O	파키스탄	O
필리핀	O	필리핀	O

아메리카 (13개국)			
가이아나	Y	베네수엘라	Y
볼리비아	Y	브라질	Y
수리남	Y	아르헨티나	Y
에콰도르	Y	콜롬비아	Y
브라질	Y	파라과이	Y
파라과이	Y	페루	Y
프랑스령 기아나	Y		

* 예보스 오염근거지역 신청
** 중국 5개 성(廣東·시닝)·광둥성·홍콩특별자치구·윈난성·칭투성·후난성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질병관리본부 사이트 ▶ <http://www.kdca.go.kr> 국가별 질병 정보 확인 ▶

